

Day n+1 일차

경제지문 배경지식 쌓기

이번 일차에선 수능에 출제됐던 경제 개념, 출제될 수 있는 경제 개념과 팁들을 알아보자.

-환율과 통화 가치, 그 영향

환율은 다들 잘 알다시피 두 통화(=통용되는 화폐라는 뜻) 사이의 거래 비율이다. 가령 1 달러에 1300 원, 이런 식으로 말이다. 경제 지문에 보면 환율을 비교하라거나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내렸다라는 말이 겁나게 헛갈린다.

팁이 있는데, 환율이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생각할 때는 무조건 1 달러는 고정시켜두자.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1 달러당 원화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 것이다. 1 달러당 1200 원하다가 갑자기 1300 원하면 환율이 오른 것이다.

또 무조건 환율 비교할 때는 1 달러당 1000 원에서 2000 원, 2000 원에서 1000 원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괜히 1200 원 1300 원 이러면 헛갈린다.

1 달러당 원화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 것

통화가치는 환율의 딱 정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1 달러당 1000 원에서 2000 원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1 달러를 사는데 1000 원만 졌으면 되는데 2000 원이나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떨어진다는 말이다. 환율이 올라갈수록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가면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환율이 변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자.

1 달러가 1000 원인 상황이다. 아이폰은 한국에선 100 만원, 미국에선 1000 달러다. 갤럭시폰도 한국에선 100 만원, 미국에선 1000 달러다.

이 상황에서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찜찜하게 달러당 100 원 올리면 헛갈리니까 1 달러당 2000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보자. 아이폰은 미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에선 여전히

1000 달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 만원이 된다. 한국에선 100 만원 주고 사던 걸 200 만원 주고 사야하니까 당연히 아이폰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갤럭시는 한국에서 나오니까 한국에선 100 만원이다. 하지만 환율상승 때문에 미국에서는 500 달러가 된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갤럭시를 전보다 많이 살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물건을 적게 사고 우리 물건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또 이 말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많다는 뜻이고, 달러가 많아지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단순화해서 보면 이런 원리로 환율은 장기적인 균형을 이룬다.

-정부와 중앙시장의 활동

앞 일차에서 본 '시장 실패'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의 시장 실패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만을 말한단기보다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하락, 불경기 등등을 포함한 시장에 문제가 있는 모든 상황을 통칭할 때 쓰인다. (그냥 정부가 시장 굴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시장 실패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 차이 없이 쓰지만 사실 시장을 규제하는 주체는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중 정부가 하는 일을 '재정 정책'이라 부르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통화 정책'이라 부른다.

-재정 정책

종류는 정부 예산, 세금 조정, 국채(-> 다음 일차에 자세히 보자)를 사다 팔았다 하는 3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도는 돈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예산을 줄여서 돈을 덜 쓰거나, 세금을 높여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오면, 정부가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예산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거나 국채를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풀린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종류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3 가지가 있다.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기준금리 조정 3 가지로 통화정책을 펼친다.

이중 재할인율(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게 돈을 빌릴 때의 이율)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지급준비율은 유사한 개념이 이미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총 예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 비율을 말한다. 예금이 100 억인데 지급준비율이 5%이면 5 억은 대출해주어도 5 억은 고객들의 예금 인출을 대비해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돈을 많이 못 빌려주니까 돈이 많이 안 돌아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용어는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은행 금리(=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중앙은행의 금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라 하면 시중은행들도 점차 2%에 맞추게 된다. 뉴스에선 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줄여서 연준)나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하면서 많이 나오곤 한다.

기준금리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면 쉽다. 하나는 예금, 다른 하나는 대출.

만약에 어느 가능세계에서 예금을 넣으면 이자를 20%씩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들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은행에 집어넣을 것이다. 다른 한편 대출 이자가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 미치면 미쳤지 아무리 미쳐도 대출을 이자 20%를 주고 왕창 받지는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연쇄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을 넣었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 돌고 있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주가랑 코인이 하락한다) 또 대출을 많이 안 받게 되니 시중에 돈이 돌 일도 줄어든다. 금리를 인하하면 정 반대의 일이 발생한다.

-호황 & 불황

그럼 애초에 왜 이런 짓을 할까? 그건 호황/불황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다.

호황일 때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우려가 있어서 시중의 돈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빼줘야 한다. 정부에선 세금을 올리고 예산을 줄이고 국채를 팔 것이고, 중앙은행은 금리,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싹 다 올릴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 한다.

반대로 불황일 때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시장에 넣어줘야 한다. 그러니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예산을 늘리고 국채를 살 것이고, 중앙은행은 금리,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싹 내릴 것이다.

다음 일차에서는 금융 상품, 탄력성, 외부효과에 대해 araboza.

[고전 소설 용어 정리]

고전 소설 용어로는 옛날 말이 아니고 고사나 속담, 잡다한 상식이 많이 나온다. 어릴 적에 많이 읽은 삼국지나 무협지가 빛을 발하게 되는 파트다. 최근 기출 5 개년 동안 나온 용어 중에 알면 좋은 용어들을 선별해봤다.

한림: 한림학사. 명나라 시대 문관 벼슬

삼공: 세명의 귀한 사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생각하면 된다.

부마: 임금의 사위

가신: 집안의 신하

송사: 재판

승상: 중국의 최고 벼슬

토번: 당나라 서쪽 티베트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 국력이 강성해 중화 사상으로 쓰여진 문학에서는 오랑캐 보스처럼 나온다.

오작: 까마귀와 까치. 견우 직녀 설화에 나오는 오작교의 그 오작이다.

약수: 부력이 약해 깃털도 가라앉는다는 강. 배가 못 떠서 주로 임이 돌아오지 않는 상상속의 이유로 쓰임.

곤륜산: 고대 동양인들의 사고에서 해가 지는 곳으로 알려진 서쪽 끝의 산

백이와 숙제: (12 일차 역사 배경지식 참조) 은나라 때 주나라의 가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도리가 아니라며 산에 들어간 후,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산에 들어가서 풀뿌리 먹다 죽은 인물들. 절개의 상징이다.

요순: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요 임금과 순 임금을 합쳐 부르는 말. 태평성대의 대명사.

참고로 순 임금 다음은 우 임금인데 우 임금도 가끔 나온다.

허부와 소유: 순 임금이 다음 임금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허유라는 자연인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임금을 맡아달라 하니까 허부가 거절하면서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시내에서 귀를 씻음. 그걸 보고 지나가던 소유가 더러운 소리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겠다며 더 상류에서 소에게 물을 먹임. 탈 속세의 대명사

**더 생각나거나 발견하면 추후에 추가

